

공 궐 의 새

2007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궁궐을 찾는 새의 중요성

문화유산으로서 조선시대 궁궐의 가치는 전 세계 어느 문화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500년을 이어온 왕실의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곳입니다. 나라의 안녕과 번성의 원천이 되는 장소였고 역사의 태동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궁궐이 조선 왕조의 심장과 같은 구실을 했다면 궁궐 후원의 숲은 허파와 같은 구실을 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창덕궁 후원과 종묘 신림의 식생들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남산, 북한산과 더불어 녹지 띠를 형성하여 살아 있는 생태 축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깃들기 위해서는 새끼를 치며 사는 터와 쉬는 터, 먹이 터 등 다양한 환경조건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새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궁궐은 하나의 작은 생태 마당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창덕궁 등 궁궐에서 1년 내내 서식하거나 번식하는 새는 100여 종이 되는데, 텃새 20종, 여름철새 31종, 겨울철새 21종, 나그네새 17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찰, 기록되고 있는 새가 450여 종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꽤 많은 새들이 궁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새에 관한 사람들의 느낌이나 생각은 시대나 지역을 초월하여 공통된 부분이 있으며, 관념에 따라 신화 · 전설 · 민속 · 무속 · 풍습 · 역사 · 문학 · 도상 등에서 무한한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마음을 추구했던 우리 조상들은 자연물과 교감함으로써 감정을 표현하거나 심상을 나타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새가 인간의 감정과 심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인식하였답니다. 새를 단순히 날짐승으로만 보지 않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성구나 속담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상징하기도 하고 농사의 풍흉과 인사의 길흉화복을 예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뿐만 아니라 여러 선비들이 건전한 사냥 문화로 애용하고 즐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새는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한의 정서를 담은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풀뿌리, 벌레 한 마리도 소중하게 다뤘듯이 새의 문화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새 관찰 요령과 주의할 사항

- > 새는 시력이 좋고 주위를 항상 조심스럽게 살피며 아주 빠르게 움직이므로 가까이 다가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10~30미터 떨어져서 관찰합니다.
- > 배울이 7~8배인 쌍안경을 사용하여 부리, 머리, 다리, 꼬리, 발, 날개의 상태나 움직이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 독특한 특징을 익힙니다.
- > 궁궐을 관람하다가 새 소리가 들리면 두리번거리며 새를 찾기보다는 설명글에 쓰인 새의 울음소리와 대조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감상합니다.
- > 우리에게 보이는 새는 대개 쉬고 있거나 먹이를 먹고 있을 때입니다.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먹이를 먹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새끼를 낳지 못하거나 다시는 궁궐을 찾아오지 않으므로 이런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 여기에 실린 새의 사진은 2002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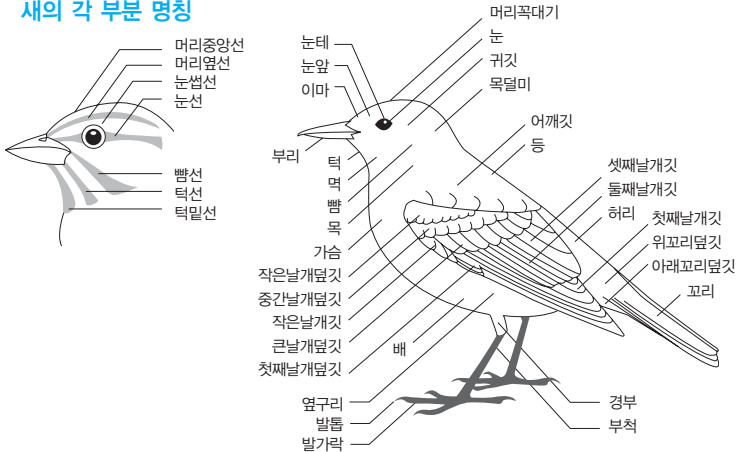
창덕궁 · 창경궁 · 종묘에서 관찰된 새를 촬영한 것입니다.

새의 분류

※ 새 이름의 글자색을 달리하여 구분하였습니다.

- 텃새 _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며 일 년 내내 떠나지 않고 사는 새
- 여름철새 _ 봄에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번식한 후 가을에 남쪽으로 날아가 겨울을 나는 새
- 겨울철새 _ 북쪽에서 번식하고 가을에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겨울을 나는 새
- 나그네새 _ 우리나라에서 번식은 하지 않고 봄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새

새의 각 부분 명칭



안내

> 경복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22
Tel. 02-3700-3900~1 Fax. 02-3700-3009
<http://www.royalpalace.go.kr>

> 창덕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Tel. 02-762-8161 Fax. 02-762-2070
<http://www.cdg.go.kr>

> 창경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85
Tel. 02-762-4868 Fax. 02-762-9514
<http://cgg.cha.go.kr>

> 덕수궁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58
Tel. 02-771-9951 Fax. 02-771-9953
<http://www.deoksugung.go.kr>

> 종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5
Tel. 02-765-0795 Fax. 02-3672-4332
<http://jm.cha.go.kr>

총괄 김중수·박동석·유중호(문화재청 궁능관리과)
사진 장석신(사진가)
글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조류학박사)

문화재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Tel. 042-481-4700 Fax. 042-481-4709
<http://www.cha.go.kr>

곤줄박이

박새과
Paridae
Parus varius



박새류 가운데 하나로 몸을 여러 빛깔로 아름답게 치장한 새입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곤줄박이는 고기가 맛이 없어서 먹지는 않았지만 새점을 치는 데 많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손 위의 땅콩을 가져갈 정도로 사람과 친근하게 지냅니다. 소리는 금속성이 강하게 “[쓰쓰 뽀이](#), [쓰쓰 뽀이](#)” 하고 반복해서 읊니다.

굴뚝새

굴뚝새과
Troglodytidae
Troglodytes troglodytes



우리나라에 사는 새 가운데 가장 작은 새입니다. 옛날에 새의 왕을 뽑기 위해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굴뚝새는 달리기를 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멧돼지의 등에 올라타고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새의 왕의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는 크고 아름답게 “[찌찌](#), [찌찌쑈로](#), [쑈로로로로](#)” 하고 지저귀고 동료들과 서로 연락을 할 때는 “[짹](#), [짹](#)” 하고 수십 초 동안 소리를 내어 읊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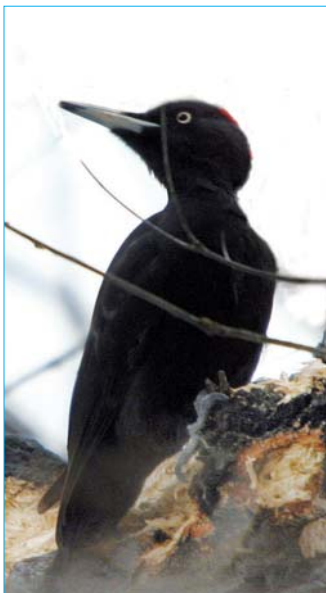
까 막 딱 따 구 리

천연기념물 242호

딱따구리과

Picidae

Dryocopus martius



나무를 쪼는 새로서 온 몸이 까맣습니다. 빨간 머리와 검은 얼굴은 마치 로마의 군신(軍神) 마르스와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탁목(烏啄木)’이라고 부르고 나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번식기에 “뚜루루루룩, 뚜루루룩” 하고 나무를 두드려 내는 소리는 산이 울릴 정도로 요란합니다. 휴식할 때는 “끼이야, 끼이야” 하고 큰소리로 울고, 날면서 “크리, 크리, 크리” 하기도 합니다.

까 치



까마귀과

Corvidae

Pica pica

우리 민족에게 삶의 정감과 운치를 더해주는 길조로 환영을 받아온 친근한 새입니다. 《삼국유사》의 석탈해 탄생신화에서 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새로 알려져 있고, 《동국세기》에서는 운수대통의 길조로 알려진 텃새입니다. 예로부터 기쁨을 가져다주는 새라 하여 ‘희작(喜鵲)’이라 불려왔습니다. 다정한 이웃처럼 새벽이면 밤새 함박눈이 소복이 쌓여 토담 옹마루 위에 앉아서 눈이 왔다고 “깅, 깅, 깅” 하고 울기도 하고, 낮선 손님이 온다고 “끼르르륵” 하고 낮게 울기도 합니다.

꿩



제사상에 올린 꿩을 먹고 큰 병을 얻어 죽을 고비를 넘긴 한 정승이 조정의 여러 대신들에게, 꿩고기가 귀하니 제사에 올리거나 먹지 말고 대신 닭을 쓰자고 건의하여 이후부터 제사에 ‘꿩을 대신하여 닭을 사용하였다’는 이야기가 한국 구비문학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이나 물건이 없을 때 그것만큼은 못하지만 대체할 경우 ‘꿩 대신 닭’이란 속담을 사용합니다. 꿩은 어떤 경우도 남을 존경할 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새입니다. 지저귀는 소리는 “꿩, 꿩” 하는데 수컷은 높게 내고 암컷은 낮게 냅니다.

꿩과
Phasianidae
Phasianus colchi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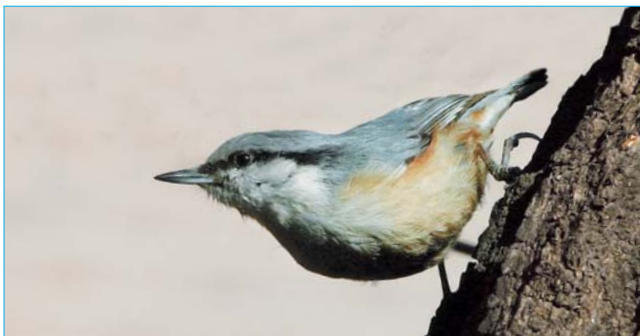
노랑턱멧새



노란색 턱에 우아한 자태를 지니고 있는 새입니다. 박새가 좋아하는 해바라기씨에는 관심이 없고 작은 알갱이로 된 들깨나 좁쌀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탁자 같은 곳에 신선하게 널려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것만 주워 먹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주인과 함께 탁자에 앉아서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새의 먹이 습성을 보면 조상이 노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짹, 치짹” 또는 “츄-이, 츄-이” 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열심히 노래합니다.

멧새과
Emberizidae
Emberiza elegans

둥고비



작은 크기에 초록빛갈의 옷을 입고 있으며 현란한 장밋빛 가슴을 가진 새입니다. 걸어 다닐 때는 신경질적으로 날개와 꼬리깃털을 벌리고, 날 때는 후룩후룩 날아다닙니다. 관람객들이 시끄럽게 떠돌고 오가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랫소리는 “피잇, 피잇, 피잇” 크게 지저귀고 때로는 빠르게 “빠비비비비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둥고비과

Sittidae

Sitta europaea

딱새



붉은 꼬리를 가진 새로 ‘무당새’ 라고도 불립니다. 몸을 치장한 색 때문에 학명에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새벽의 여신 오로라와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개 혼자서 생활하고 꼬리를 파르르 떠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전망이 좋은 곳이나 높은 곳에서는 “히히, 치이, 치카, 치이, 히이, 치카, 치이” 하고 빠르게 지저귀고 낮은 곳에서는 “힛, 힛, 힛, 힛” 하는 금속성 소리를 내며 읊니다.

지빠귀과

Turdidae

Phoenicurus

auroreus

때 까 치



까치란 이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까치와는 전혀 다른 생김새를 하고 몸집이 작은 새입니다. 작은 새, 개구리, 쥐 등을 잘게 찢어 먹기 때문에 '새의 도살자'란 뜻의 학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울음소리 외에도 다른 새나 동물의 울음소리 흉내를 잘 내므로 '백설조뿔舌鳥'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높고 탁한 소리로 "키키키키키"하고 빠르게 반복합니다.

때까치과

Laniidae

Lanius bucephalus

멧 비 둘 기



우리나라 사냥 문화에서 사냥감으로 '평' 다음으로 많이 사냥하는 새입니다. 비둘기는 장수를 상징하고 5천 년 전부터 통신용 · 관상용으로 사육되어왔습니다. 유득공의 <발해경>에는 관상용 비둘기 23종이 소개되어 있고, 서거정의 <화합>에는 비둘기의 다양한 특성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낮고 탁하게 "구, 구, 쿠-, 쿠-" 하며 읊니다. 경남 서부지방에서는 멧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마치 '제집 죽고 자석 죽고 서답 빨래 누가 할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둘기과

Columbidae

Streptopelia

orientalis

박새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새입니다. 뺨 부분이 하얗다고 하여 예부터 ‘백협조白頬鳥’라고 하였으며 ‘비죽새’라고도 불렸습니다. 아랫면이 흰색을 띠며 목에서 배 가운데까지 넥타이 모양의 굵은 검은색 세로띠가 있어 다른 박새류와 다릅니다. 인공새집이나 먹이통을 만들어 먹이를 주면 좋아하기 때문에 궁궐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소리는 “찌쭈, **프르르르-**” 또는 “**씨이, 씨이, 씨이**” 하고 아름답게 읊니다.

박새과
Paridae
Parus major

붉은머리오목눈이



보통 뱀새라고도 합니다. 눈이 작은 사람을 ‘뱀새눈’이라고 말하죠. 동작이 재빠르고 움직일 때 긴 꼬지를 좌우로 쓸듯이 흔드는 등 크기나 생김새에 비해 예상 밖의 행동이나 버릇을 자주 합니다. 숲 속을 뒤흔드는 소리꾼답게 “**비, 비, 비**” 하고 매우 시끄럽고 길게 울어댑니다.

붉은머리오목눈이과
Panuridae
Paradoxornis webbianus

새매

천연기념물 323호



수리과
Accipitridae
Accipiter nisus

그리스 신화에 보면 메가라왕이 죽은 후 새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고 새끼 뺀 것을 잡지 않아 '자비를 지닌 상징물'로 여겨 집니다. 또한 인품이 고결한 사람을 매에 빗대며 '매는 굶어도 벼이삭은 먹지 않는다'는 속담을 말하기도 합니다. 왕실 등의 지배계층에서 길들여 새 사냥에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육, 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한 매와 관련된 생태적 습성과 문화사적 기록 등이 남아 있습니다.

쇠딱따구리



나무를 잘 두드리는 새의 일종입니다. 사찰에서 아침 예불 묵탁소리보다 한 발 앞서 묵탁을 두드리고 간다고 알려진 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탁목啄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치르르륵"** 하고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딱따구리과
Picidae
Dendrocopos kizuki

쇠박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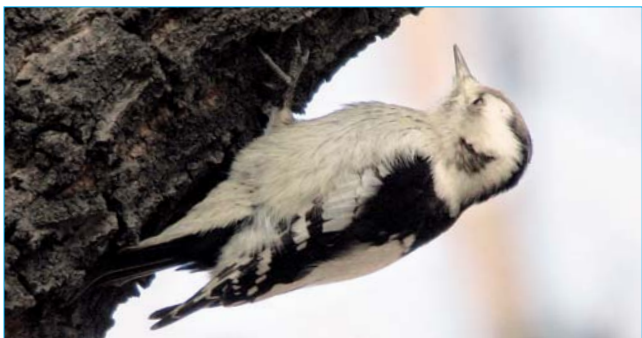
생활하는 습성 때문에 ‘늪지나 해변의 박새’라는 의미의 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대비하여 나무의 옹이나 틈새에 도토리 같은 열매를 저장하였다가 한 알씩 꺼내어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식량을 저장한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을 보면 머리가 영리한가 봅니다. 울 때는 “시치, 비비비-” 하고 소리 내어 읊니다.

박새과

Paridae

Parus palustris

아물쇠딱따구리



환경부의 보호 종으로 딱따구리 가운데서도 매우 귀하고 쇠딱따구리보다 약간 큼니다.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곳에 주로 삽니다. 먹이가 풍부한 여름에는 산중턱에서 살아 잘 보이지는 않지만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평지에 내려와서 생활하므로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딱따구리과

Picidae

Dendrocopos

canicapillus

어치

까마귀과
Corvidae
Garrulus glandarius



도토리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참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새입니다. 영어권 나라에서는 잘 지껄이는 사람을 일컬어 속어로 어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옛 이름은 ‘가짜 비둘기’라고 하였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산 까치’라고도 합니다. 경계할 때는 맹렬하게 “과악, 과악” 하고 잘 떠듭니다. 때때로 가는 소리로 “뽀우, 뽀우” 하고 휘파람 소리를 내기도 하고 다른 새나 고양이·말뚝가리의 울음소리를 교묘하게 흉내 내기도 합니다.

오목눈이

오목눈이과
Aegithalidae
Aegithalos caudatus



산에 사는 아주 작은 꼬마 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에 따르면 산에 사는 긴 꼬리를 가진 새의 부류에 속합니다. 동지를 다른 새들에게 들이지 않도록 만드는 위장술이 뛰어나고 꼬리가 몸에 비해 유난히 긴 것이 특징이죠. 날 때는 날개를 세차게 퍼덕이면서 불규칙한 방향으로 날고, 소리는 “찌르르, 찌르르” 하고 반복하며 냅니다.

오색딱따구리



다섯 가지 색깔로 치장한 새이며 큰오색딱따구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등에 'V' 자 모양의 하얀 반점이 있어 구별됩니다. 단단한 쫄이를 이용해서 나무줄기에 세로로 얹아 구멍을 파고 긴 혀를 이용해서 애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주위를 경계할 때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키웁, 키웁**” 하고 높은 음으로 읊니다.

딱따구리과

Picidae

Dendrocopos major

왜가리



‘회색빛을 띤 백로’로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백로 가운데서 가장 큰 종류입니다. 주로 낮에 활동하는데, 날 때는 다른 백로처럼 목을 ‘Z’자 형태로 굽히고 다리는 꼬리 바깥쪽 뒤로 뻗으면서 멋지게 납니다. 부부가 돌아가면서 알을 품고 새끼를 함께 기르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와-악, 와-악**” 하며 읊니다.

백로과

Ardei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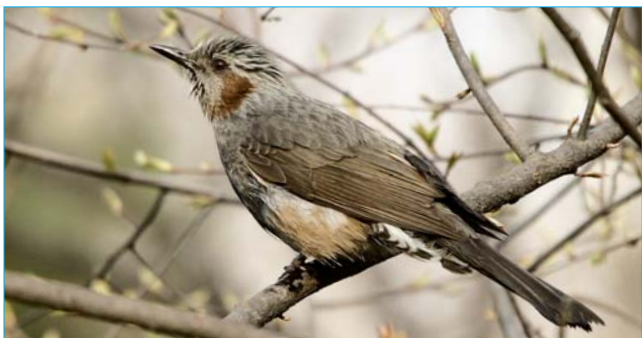
Ardea cinerea



‘원앙’은 수컷이고 ‘앙’은 암컷입니다. 암수 가운데 한 마리가 죽으면 다른 한 마리도 따라 죽는다 하여 ‘필조匹鳥’라고도 합니다. 주로 부부애, 금실 좋은 부부, 다정한 연인, 남녀의 사랑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베갯모나 이불에 원앙을 수놓은 원앙금침을 준비하고 쪽진 머리에는 원앙 모양의 원앙잠(鵝簪)을 꽂습니다. 생태학적으로는 해마다 짝하고 이혼하고 새로운 짝을 얻는 체인징 파트너를 합니다. 수컷은 “꾸에-꾸에” 하고 높게 울고 암컷은 “꾸악” 하고 낮은 소리를 냅니다.

오리과
Anatidae
Aix galericulata

직박구리



아주 높이 날고 남쪽 바닷가에 터를 잡은 새입니다. 대부분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땅 위에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마리가 울면 다른 개체가 모여들어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시끄럽게 지저귀는데, 그 소리가 음악적입니다. 소리는 “삐-잇, 삐-잇” 합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새의 울음소리를 따서 ‘홀우룩 빗죽새’라고 불렀습니다.

직박구리과
Pycnonotidae
Hypsipetes amaurotis

진박새



털이 까맣고 생김새가 귀여운 새입니다. 평지보다는 나무 꼭대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치이, 치이, 치이, 히치삐, 시치삐” 하고 울거나 “시치삐, 시치삐” 하고 빠르게 반복하면서 무엇인가 리듬에 맞추어 튕기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박새과
Paridae
Parus ater

참새



비교적 지능이 높은 새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작雀’이라 하며 와작瓦雀·빈작賓雀이라고도 합니다. 《물명고》에 참새가 늪에서 무늬가 있는 것을 마작麻雀, 어린 새의 입이 노란색인 것을 황작黃雀이라 하였으며, 《규합총서》에서는 ‘진초’라 하였습니다. “ 짹, 짹 ” 하고 소리 내며 읊니다. ‘참새 백 마리면 호랑이 눈갈도 빼간다’는 속담과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라’란 속담이 있습니다.

참새과
Ploceidae
Passer montanus

청둥오리



집오리의 원종原種이며 대표적인 사냥감 새입니다. 넓은 부리를 가진 새라는 학명이 있기도 합니다. 날아갈 때는 하늘에서 승리의 ‘V’ 자 모양을 이루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오리류는 선사시대 이후로 우리 미술에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초기 철기시대의 오리 모양 청동유물이나 각종 청화백자나 서화에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리류 가운데 가장 잘 우는 새로 “꽹, 꽹, 꽹” 또는 “궤, 궤” 하고 소리 내며 읊니다.

오리과

Anatidae

Anas platyrhynchos

청딱따구리



이름과 같이 청색 옷을 입은 딱따구리가 아니라 회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는 딱따구리입니다. 먹이로는 특히 개미를 좋아하는데 사람이 다가가면 나무에 꼼짝하지 않고 머무르는 별난 습성이 있습니다. 번식할 때는 부리로 나무줄기를 두들기며 점점 낮아지는 소리로 “히요, 히요, 히요, 히요” 하고 반복하여 맑은 소리로 울고, “뽕, 뽕, 뽕” 하고 짧게 울기도 합니다.

딱따구리과

Picidae

Picus canus

큰부리까마귀



대개 암수가 함께 사이좋게 생활합니다. 몸단장하기와 미역 감기를 좋아하여 얇은 강가에서 종종 미역을 감거나 몸단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질이 예민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으나 안전한 곳에서는 사람이 있어도 겁내지 않고 먹이를 먹습니다. 날 때는 날개를 완만하게 퍼덕여서 직선으로 납니다. 암컷과 수컷 모두 온몸이 광택이 강한 검은색이며 “까악, 까악” 또는 “깍, 깍” 하고 소리 내며 읊니다.

까마귀과
Corvidae
Corvus
macrorhynchos

큰오색딱따구리



그리 흔하지 않은 텃새입니다. 나는 행동이나 먹이 먹는 행동, 생김새가 오색딱따구리와 비슷합니다. 다만 귀 밑이 하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단한 꼬리와 발톱이 있어서 나무를 타고 오르내릴 때나 먹잇감을 취할 때 종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평행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키웁, 키웁” 하고 낮은 소리로 읊니다.

딱따구리과
Picidae
Dendrocopos leucotos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323-8호

매과

Falconidae

Falco tinnunculus



작은 새나 들쥐를 잡아먹는 텃새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쾅지깃을 부채처럼 펴고 지상에서 6~15미터 상공의 한곳에 떠서 연모양으로 공중을 빙빙 돌다가 일시적으로 정지비행을 하며 지상의 먹이를 노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날개를 몹시 퍼덕이며 직선으로 하늘로 올라 비행합니다. “키, 키, 키” 또는 “킷, 킷” 하며 날카롭게 우는데, 그 소리가 무척 무섭습니다.

흰뺨검둥오리



우리나라 유일한 여름오리이자 텃새입니다. 뺨이 흰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암수가 짝을 이루어 행동하며 새끼는 암컷이 주로 기릅니다. 어미가 새끼를 한 마리씩 입에 물거나 몸에 매달리게 하여 이곳저곳으로 이동합니다. 날 때는 “휘, 휘, 휘, 휘” 하고 날갯짓 소리를 내며, 울 때는 “켓, 켓” 소리를 냅니다.

오리과

Anatidae

Anas poecilorhyncha

검은댕기해오라기

백로과
Ardeidae
Butorides striatus



우리나라에 4월경에 찾아와 여름에 번식하는 새입니다. 다른 해오라기에 비해 날개깃 가장자리가 조릿대 잎 모양인 것이 특이하죠. 쉴 때에는 ‘Z’ 자 모양으로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냇가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 꼼짝 않고 노려보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움츠렸던 목을 쪽 편 후 뽕뽕한 부리로 물고기를 잡아 머리부터 상큼 상큼 먹습니다. 하늘을 날 때는 “큐-” 또는 “교-” 하고 소리를 냅니다.

검은딱새

지빠귀과
Turdidae
Saxicola torquata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리나라에 4월경에 찾아와 9월경에 남하하는 작은 여름새입니다. 등은 검은색, 가슴은 주황색 털옷을 입고 있지요. 겨울에 털갈이를 합니다. “짹” 또는 “히, 히, 히, 짹, 짹, 짹” 하고 소리 내며 읊니다.

깡작도요



유난히 꼬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깡작거리는 탓에 깡작도요라는 이름이 붙은 건가 봅니다. 한마디로 이름이 이 도요새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죠. 물이 있는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땅 위에서는 항상 머리와 꼬리를 까딱거리며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쉴-쉴-쉴**” 하고 가늘고 높은 소리를 냅니다.

도요새과

Scolopacidae

Actitis hypoleucos

피꼬리



몸 전체가 선명한 노란색 깃털로 덮여 있어 한자어로 ‘황작黃雀’ 또는 ‘황조黃鳥’라고 부릅니다. 몸단장하는 것을 좋아하죠. 소리는 “**히요, 호호, 호이오**” 하고 아름답게 내는데, 간혹 “**케엑-**” 하는 등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삼국사기》에는 〈황조가〉가 전해지며, 고려가요 〈동동〉에서 ‘굿거리새’라 하였습니다. 모습이 아름다운 데다가 울음소리가 맑아서 예로부터 시나 그림의 소재로 애용되었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피꼬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피꼬리과

Oriolidae

Oriolus chinensis

노랑때까치



일반 까치에 비해 몸집이 작고 귀여운 새입니다.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번식이 끝난 후에는 가족 무리를 형성합니다. 먹이를 저장해두었다가 먹는 습성도 있죠. 번식기에 수컷이 먼저 번식 장소에 도착하여 암컷에게 구애행동을 한 뒤 짝을 짓습니다. “키요, 키요, 큐, 큐” 또는 “키피, 키피, 키피” 하며 읊니다.

때까치과

Laniidae

Lanius cristatus

노랑할미새



할미새 가운데 가장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긴 꼬리로 까딱까딱하며 걸어 다니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암수 모두 등은 회색을 띤 잿빛이고 가슴은 올리브 같은 노란색을 띠지만, 수컷은 검은색 턱을 가졌고 암컷은 흰색 턱을 가졌습니다. 소리를 내며 날 때 가슴의 노란색이 더욱 잘 보입니다. 울 때는 “치치치, 치치치” 하고 소리 내어 읊니다.

할미새과

Motacillidae

Motacilla cinerea

되 지 빠 귀



참나무가 많은 곳에서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틀고 사는 여름새입니다. 먹이로는 딱정벌레나 나비의 애벌레를 먹기도 하지만 무서운 독침을 가진 벌도 잘 먹지요. 그리고 층층나무의 열매 같은 식물의 열매를 맛있게 먹습니다. “교로, 교로, 교로로” 하고 우는 소리는 아름답고 일품이지만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요란하게 읊니다.

지빠귀과

Turdidae

Turdus hortulorum

물 총 새



우리 조상들은 이 물총새의 푸른빛을 비취翡翠에 비유하여 ‘취조 翠鳥’ ‘청우작靑羽雀’이라고 불렀습니다. 물고기를 워낙 잘 잡기 때문에 ‘물고기 귀신’이라 불리며, 영어식 이름도 ‘Kingfisher’입니다. 잡은 물고기는 나뭇가지나 말뚝에 부딪쳐 죽이고 난 뒤에 먹습니다. “찌잇쯔” 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로 두세 마디씩 되풀이하면서 읊니다.

물총새과

Alcedinidae

Alcedo atthis

밀화부리



이 새는 다윈에게 ‘진화론’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종의 기원》이란 책을 쓰게 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핀치’라고도 하고 ‘갈라파고스핀치’라고도 합니다. ‘새벽을 노래하는 새’라는 뜻의 학명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수컷이 지은 둥지를 암컷이 마음에 들면 신방을 차려 혼자서 알을 품고 새끼를 기릅니다. 수컷은 또 다른 둥지를 만들어 암컷을 유혹하지요. 자손을 남기려는 욕심이 무척 많은가 봅니다. “**키-코, 키--**, **고고고**”라는 소리로 숲 속에서 울어댑니다.

되새과

Fringillidae

Eophona migratoria

붉은배새매

천연기념물 323호



배가 붉은 새매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늘 높이 떠서 날개를 놀리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날기도 하죠. 개구리를 주로 잡아먹지만 박새나 붉은머리오목눈이 같은 작은 새도 냉큼 잡아먹는 새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천적이죠. 이 새가 관찰되는 지역은 자연환경이 좋고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울음소리는 수컷만 내는데 “**키리, 키리, 키리, 키리**” 하고 연속해서 읊니다.

수리과

Accipitridae

Accipiter soloensis

산솔새



‘나뭇잎에서 곤충을 잡아먹는 새’라는 뜻의 학명을 가졌듯이 ‘바지런한 숲 속의 살림꾼’입니다. 혼자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나 무리를 지어 살지는 않습니다. 늘 나뭇가지나 키가 작은 나무의 사이를 여기저기 아주 빠르게 돌아다니며 땅바닥에 내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날개를 빠르게 움직여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하늘 높이 날거나 먼 거리를 날아가는 일이 드뭅니다. “쭈잇, 쭈잇, 썸이-” 하는 높은 소리로 지저귀니다.

회과담새과
Sylviidae
Phylloscopus coronatus

새호리기



말뚝가리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새를 홀리는 새 귀신’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조상들은 ‘새홀이기’로 불렸습니다. 날 때는 끝이 뾰족한 날개를 빠르게 펼럭여서 반듯하게 날아가며 때때로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곧게 날아가거나 날개를 심하게 펼럭이면서 공중의 한곳에서 잠깐 멈출 때도 있습니다. 작은 새를 습격할 때는 하늘에서 날개를 오므려 급강하하며, 잡은 것은 부리로 찢어서 먹고 소화되지 않은 부분은 토해냅니다. “키리, 키리, 키리” 또는 “킧, 킧, 킧” 하는 예리한 소리로 울지만 비교적 드물게 웁니다.

매과
Falconidae
Falco subbuteo

소쩍새

천연기념물 32416호

올빼미과
Strigidae
Otus scops



낮에는 잠을 자고 초저녁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밤에만 활동하는 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밤까마귀’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만 먹을 수 있는 작은 술을 내주어 밥을 하게 하였습니다. 밥을 지어도 자기 몫이 없게 되자 며느리는 끝내 끓어 죽었고 며느리의 넋이 밤마다 시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술이 적다, 술이 적다’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쩍” 하고 울면 다음해에 흉년이 들고, “소쩍다” 하고 울면 ‘술이 적으니 큰 술을 준비하라’는 뜻에서 다음해에 풍년이 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솔부엉이

천연기념물 32413호

올빼미과
Strigidae
Ninox scutulata



부엉이의 한 종류로 낮에도 활동을 하지만, 밤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새입니다. 올빼미와 생김새가 비슷한데 얼굴이 하트 모양이고 귀깃이 달려 있습니다. 쇠부엉이, 칩부엉이, 수리부엉이란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엉이들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한밤에도 사냥을 잘하는 이유는 귀가 앞을 향하여 열려 있고 오른쪽 귀가 왼쪽 귀보다 조금 높게 자리 잡고 있어서 소리가 나는 곳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밤에만 “후-, 후-” 하고 반복해서 울며 새끼는 “츄리-, 츄리-” 하고 읊니다.

쇠 백로



백로 가운데 가장 작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백로는 온몸이 흰색을 띠고 있어 포은 정몽주의 어머니가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라고 아들에게 시조를 지어 주어 나쁜 데 가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살아가라는 자세를 일러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백로의 크기에 따라 ‘중백로’ ‘중대백로’ ‘대백로’란 종류가 있고, 부리가 노란색을 띠고 있는 ‘노랑부리백로’와 온몸이 검은색으로 둘러져 있는 ‘흑로’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울 때는 “과-, 과-” 또는 “고아-, 고아-” 하는 소리를 냅니다.

백로과
Ardeidae
Egretta garzetta

알 락 할 미 새



알밑도록 꼬리를 까불어 학명에 “꼬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새”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할미새에도 옷 입는 색깔이나 특이한 생김새에 따라 노랑할미새, 백할미새, 검은턱할미새, 검은등할미새, 긴발톱할미새가 있습니다. “치칫-, 치칫-” 하는 소리로 읊니다.

할미새과
Motacillidae
Motacilla alba

중대백로

백로과
Ardeidae
Egretta alba modesta



흰색을 띤 백로 가운데서 몸집이 쇠백로나 중백로보다 약간 크고 대백로보다 약간 작은 새입니다. 날 때는 목을 'S' 자 모양으로 굽히고 다리는 꼬리 끝으로 길게 내놓고서 날개를 천천히 펴려합니다. 번식기에는 등에 있는 장식용 깃을 부채 모양으로 펼치며 과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어미 새는 “과-, 과-” 또는 “고아-, 고아-” 하며 울고, 새끼는 “жат, жат” 하는 소리를 냅니다.

찌르레기

찌르레기과
Sturnidae
Sturnus cineraceus



먹이를 찾아 나서기 전에 “찌르, 찌르륵” 하고 우는 새입니다. 울음소리가 듣기 좋고 정감을 주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새입니다. 장석남의 시 <새떼들에게로의 망명>에서 ‘찌르라기 때가 왔다. 쌀 씻어 안치는 소리처럼 우는 검은 새떼들’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찌르레기를 현실을 벗어나 이상세계로 가기 위한 매개체로 형상화하였습니다. 혼자 날 때는 직선으로 날지만 여러 마리가 함께 날 때는 어지럽게 뒤엉키듯이 날며, 땅 위에 내려앉을 때는 몇 번 원을 그리며 맴돌다가 미끄러지듯이 내려앉습니다.

침때까치



때까치와 달리 머리부터 목까지 잿빛을 보입니다. 자기 영역 안에 다른 침때까치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퍼덕이거나 기류를 타고 직선 또는 완만한 파도 모양을 그리면서 납니다. 풀 위나 관목 위를 스치듯이 낮게 날고 높이 나는 일은 드뭅니다. 때까치처럼 뽀족한 가지나 철조망 가시에 먹이를 꽂아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키웁, 키웁**” 또는 “**콧, 콧, 키치, 키치 키치**” 하고 우는데 수컷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면서 다른 새의 침입을 경계합니다.

때까치과
Laniidae
Lanius tigrinus

큰유리새



대개 암수가 함께 살다가 번식이 끝날 무렵에는 어린 새를 데리고 가족 무리를 이루며 사는 새입니다.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고 땅 위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재빨리 이동하는데, 일단 자리를 잡은 뒤에는 잘 움직이지 않으며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먹고는 다시 본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둥지 부근의 전망 좋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 “**삐, 삐이, 삐이즈그, 지잇**” 하고 명량한 소리로 지저귍니다. 지저귂 때는 먹의 깃털을 약간 세우는데, 가끔 암컷이 수컷과 비슷한 소리로 지저귂 때는 몸을 다소 흔듭니다. 때로는 ‘흰눈썹황금새’와 ‘멧새’의 울음소리를 흉내 낼 때도 있습니다.

딱새과
Muscicapidae
Cyanoptila cyanomelana

파랑새

파랑새과
Coraciidae
Eurystomus orientalis



몸 전체가 청록색을 띠고 부리와 다리가 빨간색을 띠고 있는 귀여운 새입니다. 동학혁명이 진행 중이던 무렵에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라는 민요가 백성들 사이에 예언의 노래로 널리 불려 우리 겨레의 애환을 품고 사는 새이기도 합니다. 파랑새는 청나라를 의미하고 녹두꽃은 녹두장군으로 알려진 전봉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케엏, 케엏” 또는 “케케켓, 케케케켓” 하고 시끄럽게 읊니다.

해오라기

백로과
Ardeidae
Nycticorax nycticorax



조선 왕조의 6품 문관의 흉배에 문장으로 사용되기도 한 새입니다. 다른 백로류와 함께 혼성으로 번식하며 주로 낮에는 숲 속에서 쉬고 있다가 밤에 활동하는 새입니다. ‘S’ 자 모양으로 목을 움츠리고 걸어 다니며, 쉴 때는 한 쪽 다리만으로 서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밤중에 까마귀와 같은 울음 소리를 낸다고 하여 ‘밤까마귀’라고 부릅니다. “과- 과-” 같은 소리로 간격을 두고 울부짖습니다.

호랑지빠귀



몸 색깔이 호랑이 무늬처럼 알록달록한 새입니다. 주로 새벽녘과 늦은 밤에 보통 슬프고 가느다란 피리 소리같이 “**히이 호오**” 하고 지극히 조용하게 읊니다. 경남지방에서는 이 새가 저녁 때 구슬피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이 혼을 빼앗긴다고 하여 ‘혼새’라고 부릅니다. ‘**씨이-**’ 하고 울면 사람이 죽고 “**휘이-**” 하고 울면 큰 불이 난다는 속설이 있어 ‘지옥조’ ‘염불조’ ‘유령조’ 등 ‘불길한 새’라는 의미의 별칭들이 있습니다. 이 새의 울음 소리는 새들조차도 싫어합니다.

지빠귀과
Turdidae
Turdus dauma

후투티



새의 날개깃으로 만든 인디언 추장의 모자와 비슷하다고 여겨 ‘추장새’라고도 부릅니다. 유럽에서는 후투티가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우리나라 까치처럼 행운을 가져다 주는 길조로 여겨 새장에 키우기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 후투티가 많아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기도 합니다. 나무 위나 땅 위에서 3음절로 “**보보보, 보보보**” 하고 울리듯이 우는데 병어리 빠꾸기의 울음소리와 비슷하지만 좀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읊니다.

후투티과
Upupidae
Upupa epops

휘파람새



“호호오오-, 후훗케교” 또는 “쫘, 쫘, 쫘” 하는 휘파람새 소리를 들으면 ‘아, 봄이 왔구나’ 하고 느끼게 되므로 ‘춘고조春告鳥’ ‘화견조花見鳥’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화나무의 휘파람새’란 말이 있듯이 매화나무에 휘파람새가 잘 찾아와 시·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화나무와 같이 봄의 전령으로 여겨지는 새입니다. 학명에는 ‘두 개의 소리를 내는’이란 뜻이 있기도 합니다.

휘파람새과
Sylviidae
Cettia diphone

흰날개해오라기



해오라기류 가운데서도 하얀 날개를 가져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어식 이름으로는 ‘중국의 연못에서 생활하는 해오라기’라는 뜻의 ‘Chinese Pond Heron’이라고 부릅니다. 해오라기류에는 알락해오라기, 덩불해오라기, 큰덩불해오라기, 붉은해오라기, 열대붉은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가 있습니다.

백로과
Ardeidae
Ardeola bacchus

흰눈썹황금새

딱새과
Muscicapidae
Ficedula zanthopygia



눈썹이 노란색을 띠고 있으면 황금새이고, 하얀색을 띠고 있으면 흰눈썹황금새입니다. 주로 전나무에 둥지를 틀거나 줄기에 구멍을 내어 번식합니다. “핑, 핑, 핑 크루루” 하는 울음소리를 냅니다.

개똥지빠귀

지빠귀과
Turdidae
Turdus naumanni eunomus



겨울에 자주 볼 수 있으며 흔히 10~20마리씩 무리를 이루며 사는 새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예닐곱 개씩 감을 따지 않고 남겨 두어 까치밥이라 하였습니다. 초겨울에 덩그마니 남아 있는 감나무의 까치밥 감을 쪼아 먹는 새이기도 합니다. 새들이 겨울에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먹이를 남겨두는 조상들의 풍습은 자연과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민족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키요룻, 키요룻, 키찌, 키찌, 키찌” 하며 울어댑니다.

나무발발이

나무발발이과

Certhiidae

Certhia familiaris



새의 이름처럼 나무줄기를 아주 빠르게 나선형으로 빙빙 돌면서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이르면 다른 나무로 옮겨가 다시 밑동부터 오르는 새입니다. 나무줄기에 바짝 붙어 있으면 등의 보호색 때문에 나무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번식할 때 “짹, 짹” 하는 금속성의 예리한 소리를 내며 읊니다.

노랑지빠귀

지빠귀과

Turdidae

Turdus naumanni naumanni



지빠귀류 가운데 개똥지빠귀와 같이 겨울을 우리나라에서 나는 새입니다. 개똥지빠귀와 그 생김새가 비슷하나 등이 연한 녹색을 띤 갈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지요. “키요룻, 키요룻, 키찌, 키찌, 키찌” 또는 “키웁, 키웁 키요룻” 하며 읊니다.

논병아리



다른 새들에 비해 다리가 좀 더 몸뚱이 뒤에 있고 물에서 살기에 알맞게 생겨 땅에 오르거나 하늘을 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입니다. 대신 잠수 능력이 뛰어나 ‘잠수의 명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암수가 같이 “킧, 킧, 킧, 과-” 하며 높은 음의 소리를 지르는데, 수컷은 싸울 때 “부-, 부-” 하고 울며, 새끼는 “삐-요, 삐-요” 하고 읊니다.

논병아리과

Podicipedidae

Podiceps ruficollis

되새



10마리에서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생활하는 새입니다.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일제히 땅에 내려앉아 먹이를 찾습니다. 주로 농작물이나 나무열매 등을 먹습니다. “콧, 콧, 콧” 하고 곱게 우는 명금이기도 하지요.

되새과

Fringillidae

Fringilla

montifringilla

백 할 미 새



할미새 가운데 주로 흰색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새가 꼬리를 자주 움직여 학명에도 ‘작은 꼬리를 움직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영어식 이름은 ‘꼬리를 흔드는 하얀 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할미새가 집에 등지를 틀면 그 집안이 번성하고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결치듯이 날고, 날아가면서 “쫘쫘, 쫘쫘” 또는 “쭈쭈, 쭈쭈” 하고 읊니다.

할미새과
Motacillidae
Motacilla lugens

상 모 솔 새



솔새 가운데 겨울을 나는 새로 주로 높은 지역의 침엽수림에서 암수가 함께 생활하는 새입니다. 같은 솔새류에는 여름새인 산솔새, 나그네새인 되솔새·쇠솔새가 있지요. 머리에 노란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울음소리는 “씨, 씨, 씨” 하고 가는 금속성 소리를 냅니다.

휘파람새과
Sylviidae
Regulus regulus

쇠오리



오리와 가운데서 몸집이 가장 작은 오리이며 사냥감으로 애용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새입니다. 낮에는 해상 등 안전한 곳에서 무리를 이루어 휴식하고 밤에는 논밭에서 생활합니다. 수컷은 “삐리, 삐리, 삐리” 암컷은 “켓, 켓” 하는 소리를 냅니다.

오리과
Anatidae
Anas crecca

쑥새



학명이나 영어식 이름이 ‘시골에서 주로 서식하는 멧새’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골새’ 또는 ‘촌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작게는 20~30마리, 많게는 100~200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 삽니다. 이동할 때 많이 울며 무리를 지어 “삐삐, 삐삐, 삐요, 삐삐, 삐요, 삐삐, 삐요, 치치구, 치치구 치구” 하는데, 마치 종다리 울음소리를 낮고 가늘게 흉내 내는 듯 읊니다.

멧새과
Emberizidae
Emberiza rustica

참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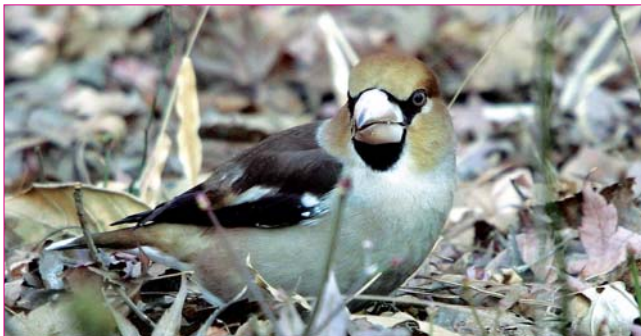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323호



수리과
Accipitridae
Accipiter gentilis

훈자 또는 암수가 함께 살며 날아가는 먹이를 노리는 것이 특징이어서 한국에서는 예부터 평을 사냥할 때 쓰였던 새입니다. 예부터 ‘매는 굶어도 벼이삭은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정직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으며 빈곤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경계할 때는 “**각, 각, 각**” 하고 울고, 싸울 때는 “**꾸락, 꾸락, 까, 까, 각**” 하고 매서운 소리를 내면서 읊니다.

콩새



되새과
Fringillidae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콩을 잘 먹어 콩새란 이름이 붙은 새입니다. 학명도 ‘장과나 곡식을 부수어 먹는 새’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와 민족은 달라도 콩새의 생태를 보고 느끼는 인간의 인식은 비슷한가 봅니다. “**찌찌, 찌찌**” 또는 “**쫑쫑, 쫑쫑**” 하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를 냅니다. 새끼를 칠 무렵이 되면 휘파람 비슷한 소리로 지저귍니다. 소리나 자태가 아름답지 않고 고기 맛도 별로 좋지 않지만 옛날 중국에서는 자태가 다른 새와 달라 관상용으로 길렀다고 합니다.

큰기러기



한국에 찾아오는 기러기류 가운데 쇠기러기 다음으로 많은 새입니다. 기러기는 가을에 오고 봄에 돌아가는 철새로 가을을 알리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인간의 감흥과 정서를 일으키는 새입니다. 또한 소식을 전해주는 새로 인식되어왔으며, 암수가 의가 좋고 사랑이 깊고 정절을 지키는 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이르러 첫 의식으로 나무기러기를 전하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낮고 탁한 소리로 “과안-, 과안-” 하고 읊니다.

직박구리과
Anatidae
Anser fabalis

큰부리밀화부리



새벽을 알리는 새로 밀화부리에 비해 월등히 큰 부리를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나방의 고치 속에 들어 있는 유충이나 번데기를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은 암컷을 얻기 위해 아름다운 둥지를 짓고 여러 가지 장식품을 두어 유혹하여 부부관계를 맺습니다. 한 마리의 암컷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둥지를 만들고 다른 암컷들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수컷이 이렇게 자손을 번식하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되새과
Fringillidae
Eophona personata

홍 여 새

여새과

Bombycillidae

Bombycilla japonica



매우 빛나는 날개를 가진 새입니다. 황여새와 생김새나 몸의 색깔이 비슷하지만 꼬리 깃의 끝이 홍색을 띠고 있는 까닭에 홍여새라고 하죠.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고 먹이를 먹기 위해 서로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히이, 히이, 히이” 또는 “지리, 지리, 지리” 하며 높고 가늘게 소리 내어 읊니다.

황 여 새

여새과

Bombycillidae

Bombycilla garrulus



‘비단과 같은 꼬리를 가진 새’라는 학명과 ‘윤이 나는 날개를 가진 새’라는 영어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홍여새와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하지만 꼬리 끝부분이 노란색을 띠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나무에 매달려 열매를 쪼아 먹습니다. 나무 위에 앉을 때는 “삐이, 삐이, 삐이” 또는 “히이, 히이, 히이” 하고 높고 낮은 음의 가는 소리로 다 같이 반복해서 읊니다.

흰배지빠귀



다른 지빠귀류에 비해 배가 얼룩진 흰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활할 때는 암수가 쌍을 이루어 살지만 이동할 때는 무리를 이루어 날아갑니다. 중형의 몸집으로 고운 목소리를 지닌 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무 꼭대기에 앉아 “꼬로, 꼬로, 꼬로로” 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잔잔하게 울며 되지빠귀와 비슷하나 끝에 구르는 소리로 다소 강하게 읊니다.

지빠귀과

Turdidae

Turdus pallidus

꼬까참새



참새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참새의 참새과가 아니라 멧새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꼬까옷을 입은 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뵤, 뵤, 뵤뵤, 뵤뵤, 뵤뵤, 뵤뵤, 뵤뵤, 뵤뵤” 또는 “찌찌찌찌, 쪼이, 쪼이” 하며 신나게 지저룹니다.

멧새과

Emberizidae

Emberiza rutila

노랑 눈썹 솔 새



이름 그대로 노랑 눈썹을 가진 솔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봄과 가을에 이동 중 머물렀다 떠나는 새이죠. 허리솔새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소리는 “삐잇” 하고 반복해서 지저귀니다.

회파람새과
Sylviidae
Phylloscopus
inornatus

노랑 딱 새



가슴 부위가 녹갈색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다가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먹은 후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여 하루에도 수없이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춘향전>에서 이 새를 ‘황금조’라 하여 만 갈래 버드나무 가지에서 ‘벗을 부르는 새’로 묘사하였습니다. 울 때는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하고 밝게 읊니다.

딱새과
Muscicapidae
Ficedula mugimaki

되솔새



참새보다 훨씬 작고 귀여운 새입니다. 쇠솔새가 사는 높은 산과 산솔새가 사는 낮은 산의 중간 지역에 삽니다. 번식기 이외에는 독신 생활을 하고 다른 솔새류보다도 어두운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리는 3음절로 “하- 쓰- 키-” 하고 지저귀며 금속성의 큰 소리로 “피-잇” 하고 반복해서 읊니다.

회파람새과
Sylviidae
*Phylloscopus
tenellipes*

솔딱새



‘거무스름한 잿빛의 빛깔을 지니면서 파리를 잡아먹는 새’란 영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위에 내려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무 꼭 대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가 파리 같은 곤충류가 접근해 오면 잡아먹은 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치이즈크, 치이즈크, 치이즈크” 하고 울어대고 경계를 할 때는 “짹, 짹” 하며 읊니다.

딱새과
Muscicapidae
Muscicapa sibirica

쇠솔새



아주 작은 솔새로 쌀쌀하고 높은 침엽수림에서 서식하는 새입니다. 번식기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이동 시기에는 무리를 형성하여 이동합니다.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먹이를 먹기 위해 땅에 내려오는 일이 없습니다. 높고 빠르게 “쭈리 쭈리 쭈리 쭈리” 하고 4~5초간 15회 정도를 되풀이해서 읊니다.

회파람새과

Sylviidae

Phylloscopus borealis

쇠솔딱새



몸집이 아주 작은 새입니다. 영어식 이름 ‘Flycatcher’ 처럼 날아가는 곤충을 재빠르게 잡는 사냥 솜씨가 일품입니다. 등은 갈색을 띠지만 앞가슴에는 무늬가 거의 없습니다. 습성은 다른 딱새류와 같습니다. 전망이 좋은 곳에 앉아서 “크쭈, 크쭈, 찌찌, 찌찌” 하고 울거나 작고 가는 소리로 “삐이, 삐이, 삐이, 삐찌, 삐찌, 삐찌” 하고 가려하면서 귀엽게 읊니다.

딱새과

Muscicapidae

Muscicapa dauurica

울새



동화 《비밀의 화원》에서 주인공 메리의 친구로 나오는 새입니다. 박새 정도 크기의 작은 새이지만 눈이 큰 것이 특징이죠. 이른 아침에는 숲 가장자리에서 행동하며 낮에는 우거진 숲 속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울 때는 가슴을 펴고 꼬지를 높게 치켜세운 채 가늘고 약한 소리로 “친 두루루루-” 하고 독특하게 소리 내어 읊니다.

지빠귀과

Turdidae

Luscinia sibilans

유리딱새



푸른 망토를 입고 곳곳이 서 있는 고독한 나그네 새입니다. 생활 습성에 따라 ‘다리를 곧게 직립해서 나뭇가지에 앉는 모습’이란 뜻의 학명이 지어졌습니다. ‘분포권이 시베리아인 푸른색의 딱새’라는 영어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번식기가 돌아오면 나무 위에서 “효로로, 효로로, 뽀요로로로, 뽀요로로로” 하며 울어댑니다.

지빠귀과

Turdidae

Tarsiger cyanurus

제비딱새



몸은 잿빛이지만 다른 딱새류에 비해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며 갈끔한 새입니다. 앉을 때는 제비처럼 몸을 꼳꼳하게 세우고 앉습니다. 앞뒤로 움직일 뿐 아니라 날아가는 먹이에 따라 방향을 급선회하기 잘하여 공중에 나는 곤충을 낚아채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독신으로 살거나 암수가 함께 항상 나무 위에서 생활합니다.

딱새과

Muscicapidae

Muscicapa griseisticta

진홍가슴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진홍가슴 어미 새가 발견하고 피를 닦아주다가 핏방울이 어미 새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사람이 “너의 착한 마음이 네 조상이 그렇게도 소망하였던 꿈을 이제 이루어주었구나!” 하고 귓속말로 전하였습니다. 어미 새는 깜짝 놀라 물로 씻었지만 진홍빛 가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태어나는 아기 새는 가슴에 진홍빛 털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로키리, 교로키리, 카-교로카-치리리” 하며 성량이 풍부한 굵은 목소리로 읊니다.

지빠귀과

Turdidae

Luscinia calliope

족새



“짹짹찌리리이, 찹리리” 하고 빠르고 끊임없이 지저귀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을 족새라고 하기도 하죠. <수다쟁이 족새>라는 동화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먹이를 찾아 잼싸게 먹고 달아나는 모습에 연유하여 경망스레 덤벼거리며 출랑거리는 사람을 ‘까불기는 족새 같다’ 라고 일컫는 속담이 있습니다. 몸집이 참새보다 약간 크고 물새는 아니지만 습지를 좋아합니다.

멧새과

Emberizidae

Emberiza

spodocephala

한국 동박새



동박새와 비슷하지만 몸집이 조금 작은 새로 ‘길 잃은 새’입니다. 행동이 민첩하고 겁이 많아 사람이 다가오면 몸을 숨기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동박새처럼 동백꽃의 꿀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백꽃이 필 무렵이면 동백나무 숲에 무리를 지어 모여들어 꿀을 빨아 먹습니다. 동박새에 비해 ‘옆구리에 밤 색깔을 하고 하얀 눈을 가진 새’란 영어식 이름이 있습니다.

동박새과

Zosteropidae

Zosterops

erythropleurus

흰눈썹긴발톱할미새

할미새과

Motacillidae

Motacilla

flavasimillima



긴발톱할미새와 비슷하나 날씬한 몸매에 머리가 회색을 띠며 눈썹이 흰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할미새류는 주로 물가에서 생활하며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대체로 꼬리를 흔들며 빠르게 걸어 다니며 파도 모양으로 날아갑니다. 이동 중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새인 흰눈썹긴발톱할미새는 “치짹, 치짹” 하고 지저귀니다.

흰눈썹울새



체구는 작지만 가슴 부위가 얇은 푸른색, 검은색, 붉게 녹슨 색 순으로 세 가지 색의 띠를 둘러 독특한 디자인을 한 조용하고 귀여운 새입니다. 소설가 천양희가 지은 <마음의 수수밭>에서 ‘생이 어떻게 무감동인가 무의미한가 무력한가 무색하여 나는 오늘 흰눈썹울새처럼 이동하고 싶다’라고 표현하여 나그네 설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쫘, 쫘, 쫘, 쫘, 찌르, 찌르, 찌르” 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니다.

지빠귀과

Turdidae

Luscinia svecicus

흰배멧새



이름과 같이 멧새류 가운데 배 부위가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제일 많형인 멧새를 비롯하여 입은 옷의 색깔과 생김새에 따라 노랑턱멧새, 노랑눈썹멧새, 붉은뺨멧새, 쇠붉은뺨멧새, 검은멧새란 사촌형제들이 있습니다. 먹이 습성이 식물의 작은 열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조밭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울 때는 “찌짹, 찌짹” 하고 조잘댁니다.

멧새과

Emberizidae

Emberiza tristrami

hing 둥새



주로 숲이나 밭에서 살기 때문에 ‘숲밭종다리’ 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숲종다리’ 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는 꼬지를 끊임없이 위아래로 흔들고 걸을 때는 두 다리로 빨리 걷고 뛰지는 않습니다. 날 때는 파도치는 모양을 하면서 납니다. 종달새의 울음소리와 비슷하게 “찌이-, 찌이-” 하고 읊니다.

할미새과

Motacillidae

Anthus hodgsoni